

“선배가 교과서·피안타는 영양제…내 보직은 막내”



KIA 투수 김기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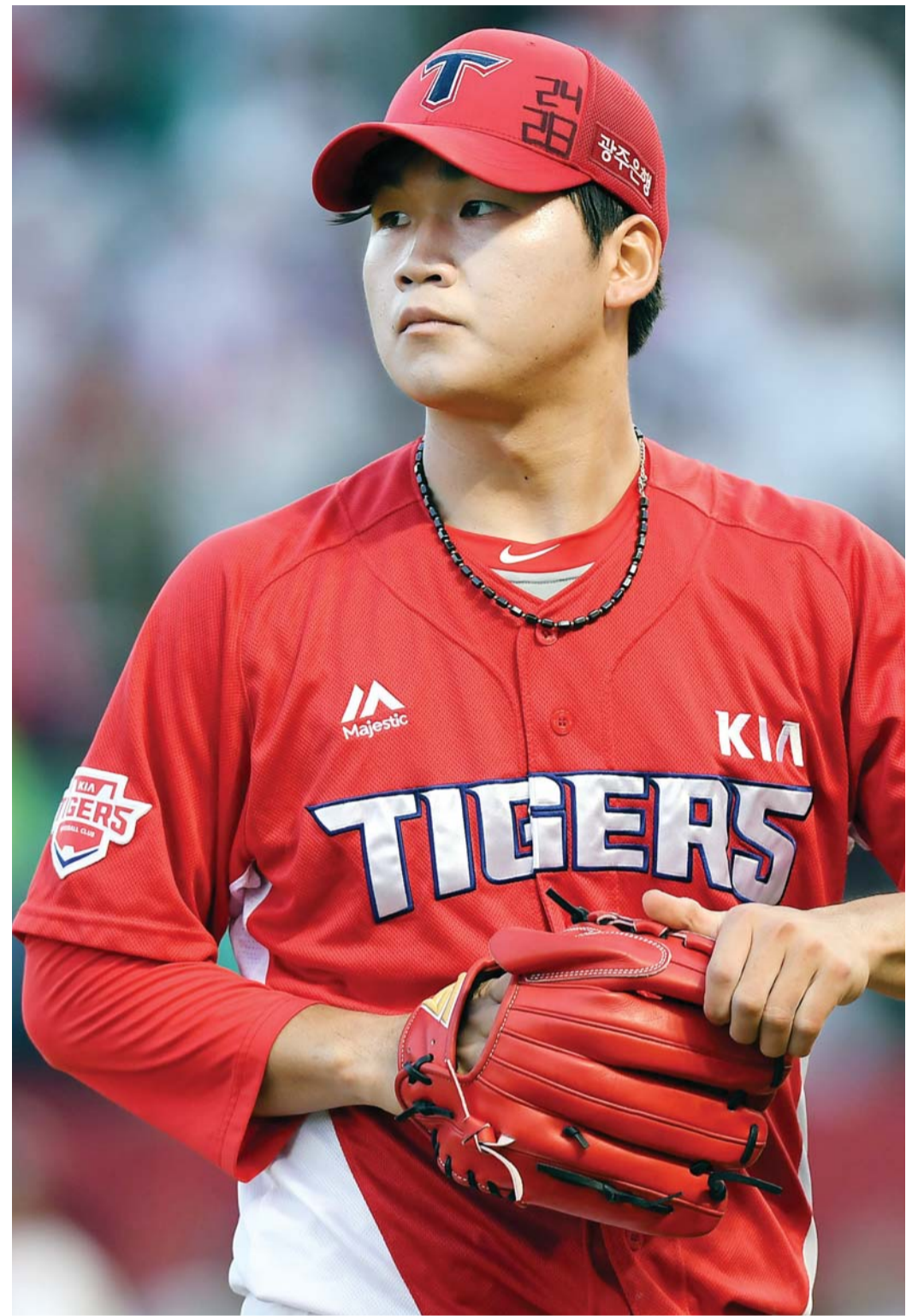
올 시즌 프로 데뷔...16경기 2승5패 방어율 5.43
제구 난조에 사구 남발 ‘프로의 높은 벽’ 실감
“다음 등판 대비 전력 분석·투구수 관리 연구 매진”

시간과 선배가 KIA 타이거즈의 ‘막내’ 김기훈을 키운다.
좌완 김기훈은 지난 겨울 광주 동성고를 졸업하고 프로 무대에 뛰어든 고졸 투수다.
스프링캠프에서부터 선발 후보로 조련된 그는 올 시즌 3차레 구원 등판 포함 16경기에 나와 5.43의 평균자책점으로 2승 5패를 기록하고 있다.
승리투수가 되어 스포트라이트를 받기도 했지만 마음같이 않은 제구 탓에 진땀을 흘리는 날도 있고, 힘 있고 정교한 타자들의 공세에 막혀 프로의 높은 벽을 실감한 날도 많다.
하지만 김기훈은 프로 첫해 많은 것을 배우면서 선발자리를 지키고 있다.
올 시즌 KIA의 이어진 4·5선발 고민 속에서 김기훈은 꾸준하게 선발로 역할을 해주고 있다.
27일 삼성전에서 이민우가 선발로 투입됐고, 임

기훈이 불펜으로 자리를 옮기는 등 선발진에 변화가 생겼지만 김기훈은 선발로 다음 등판을 준비하고 있다.
“막내로 정신없이 시즌을 보내고 있는 김기훈은 ‘시간이 참 빠르다’고 웃었다.
지난 26일 2020 신인드래프트가 진행되면서 김기훈에게도 ‘예비 후배’들이 생긴 것이다.
좌중우돌 실패와 시행착오 속에 프로 세계를 배우고 있는 김기훈은 프로 입단을 준비하는 후배들에게 ‘건강한 몸’을 이야기했다.
김기훈은 “올 시즌 정신이 없었던 것 같다. 시간이 빨리 지나간 것 같다”며 “나도 배워야 할 게 많은데 다들 안 다치면 좋겠다. 그냥 몸만 잘 만들어오면 된다. 그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프로를 경험하고 선배들 사이에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건강한 몸’이 우선이라는 이야기다.

김기훈은 “다른 것은 선배들 앞에서 경험해봐야 한다. 나도 아직 몰라서 경험을 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직도 하루하루가 낯선 김기훈이지만 경쟁한 선배들과 많은 팬들 앞에 설 때면 프로라는 걸 느낀다.
김기훈은 “좋아하던 팀에 와서 야구를 하고 있다. 야구하기 전에도 옛날 무등경기장 많이 찾았었다. 신기하게 어렸을 때 봤던 선배들과 야구를 하고 있다”며 “경기장에서 프로라는 게 실감난다. 선배님들과 시합하고 팬들도 많기 때문에 실감이 난다”고 웃었다.
선배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김기훈에게는 공부다. 선배들은 욕심 많은 후배를 위해 스승 역할도 자처한다. 특히 같은 좌완인 양현종은 애정으로 김기훈에게 조언을 아끼지 않는다.
김기훈은 “선배가 많은 것을 알려준다. 제가 물어보려 하기도 하고 많이 배우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음 등판을 위해 전력분석하고 있다. 공부도 해야 할 것 같다”며 “투구 수가 많은 게 약점이니 까 줄이려고 하는데 쉽지 않다. 투구수 관리 잘해볼려고 준비하고 있다. 나도 욕심이 있고 그러니까 열심히 잘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덕아웃 T 특특

전역 후 복귀 1호 고장혁 “설레요”

▲설레요 = 경찰야구단 제대 선수 중 고장혁이 가장 먼저 1군에 복귀했다. KIA는 27일 삼성과의 경기에서 앞서 오정환을 엔트리에서 말소하고 고장혁을 등록했다. 지난 12일 전역 후 합평철리저스필드에서 훈련을 해왔던 ‘예비역 4인방’ 중 첫 클업이다.
고장혁은 “그동안 TV로만 봤으니까 설레다. 약간 신인의 느낌이다”며 “오랜만에 오니까 적응이 안 된다”고 웃었다. 또 “확실히 팀에 들어오니까 느낌이 다르다. 긴장감도 다르다”고 언급한 고장혁은 “하지만 어차피 야구는 똑같다”며 자신 있게 좋은 역할을 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눈치우면서 삼 휘둘러봤어요? = 고장혁의 복귀가 반가운 박찬호다. ‘예비역’ 고장혁이 27일 1군에 등록되면서 오랜만에 함께 야구를 하게 된 두 사람. “예전에 들어 벤치 멤버였다”면서 웃은 박찬호는 고장혁에게 새로운 팀 스케줄도 알려주면서 즐거운 분위기에서 훈련을 진행했다. 하지만 군대이야기가 나오면 박찬호의 태도가 조금 달라졌다. 수도방위사령부에서 현역으로 군복무를 했던 박찬호는 “눈치우면서 삼 휘둘러봤느냐”며 사람들을 웃게 했다.
▲그대로 하면 좋지 = KIA에는 비가 멈춘 하늘이 반가웠다. 27일 광주 경기는 날씨가 변수였다. 간밤

에 비가 많이 내린 데다 오후 늦게까지 비가 온다는 예보가 있었다. 이날 오후 늦게까지 이슬비가 이어지기는 했지만 경기는 정상적으로 진행됐다. 박흥식 감독 대행은 “그대로 하면 우리에게는 좋다”며 경기를 반겼다. 강팀들과의 험난한 원정 6연전을 치르고 온 뒤 상대적으로 약팀들과의 일정이 기다리고 있다. 또 28일 양현종이 출격하게 되면 로테이션에 따라 다음 주 양현종이 화요일과 일요일 두 경기를 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5강의 꿈은 멀어졌지만 마지막까지 포기할 수 없는 KIA의 애타는 마음이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빛나간 조준 27일(한국시간) 이탈리아 밀라노의 주세페 메아차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9-2020 세리에A 1라운드에서 인터밀란 수비수 안드레아 리노 키아(왼쪽)가 레제 공격수 지안루카 라파라와 볼 경합을 하고 있다. 이날 홈팀 인터밀란이 4-0 대승을 거뒀다. /연합뉴스

무승부에 갇힌 ‘광주 FC’

K리그2 25R 대전과 0-0...8월 4경기 연속 무승부

광주FC의 거침없던 질주가 4경기 연속 무승부로 제동이 걸렸다.
광주는 지난 26일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대전시티즌과의 2019K리그2 25라운드 경기에서 0-0으로 승부를 가리지 못했다.
이와 함께 광주는 8월 한 달 치러진 4경기를 모두 무승부로 마감하게 됐다.
올 시즌 전적이 14승 10무 1패(승점 52)가 되면서 2위 부산아이파크(13승 8무 3패·승점 47)와 승점 5점 차는 유지했지만 최하위 대전을 상대로 한 무승부였기에 아쉬움이 남는다.
초반 탐색전을 벌이던 광주는 전반 11분 공격 진영까지 올라온 아솔마토프의 첫 슈팅으로 공격을 시작했다.
하지만 대전의 두터운 수비에 막히면서 이렇다 할 기회를 만들지 못했다. 오히려 골키퍼 윤평국이 전반 38분 빠른 판단으로 키쿠의 1대 1돌파를 막는 등 광주가 몇 차례 기습을 쓸어내렸다.
소득 없이 전반전을 끝낸 광주는 후반 3분 이희균을 빼고 엄원상을 투입하면서 교체 카드로 분위기 전환에 나섰다.

잠시 광주의 공격에 활기가 불었다. 그리고 후반 9분 문전 혼전 상황에서 흐른 공을 임민혁이 슈팅으로 연결했지만 공은 골대를 비껴갔다.
후반 22분 김준형에 이어 37분에는 김주공이 교체 선수로 승리 사냥에 뛰어 들었다.
김주공이 대전 수비를 흔드는 데는 성공했지만 마지막 결정력이 아쉬웠다. 후반 42분 엄원상의 제지 있는 패스에 이어 김주공의 슈팅이 나왔지만 골키퍼에 막히는 등 끝내 골은 터지지 않았다.
‘해결사’ 펠리페도 대전 수비진에 봉쇄되면서 위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최하위 대전을 상대로 아쉬운 무승부를 기록했다.
광주 박진섭 감독은 “흥경이이고 이겨야 하는 경기였는데 아쉽게 비겼다.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반성하고 새로 준비해야 할 것 같다”며 “앞에(무승부) 3경기는 원정경기이고 강팀(부산)이었다. 비기는 것은 만족스럽지 않았지만 그럴 수 있는 경기였는데 오늘은 비기는 게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승리하지 못한 것에 대해 되짚어 봐야 할 것 같다”고 아쉬운 소감을 밝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광주·전남 출신 4명 U-22 대표팀 합류

엄원상·임민혁·황태현·한찬희, 내년 도쿄올림픽 축구 예선 준비

광주FC의 듀오 엄원상과 임민혁, 안산의 황태현, 전남의 한찬희가 2020 도쿄올림픽을 준비하는 U-22 대표팀에 합류한다.
김학범 감독은 9월 제주도 서귀포에서 개최될 KEB하나은행 초청 올림픽대표팀 친선경기를 위해 26명의 소집 명단을 지난 26일 발표했다.
광주 유스(금호고) 출신인 엄원상은 2019 폴란드 FIFA(국제축구연맹) U-20 월드컵에서 폭발적인 스피드를 앞세워 경기흐름을 뒤집는 조커 역할을 100% 수행했다.
중원에서 활발한 움직임과 탈압박이 강점인 임민혁은 그동안 U-19, U-20 등 세대별 연령대 대표팀을 두루 거치며 활약했다.

U-20 대표팀의 주장 황태현도 합류했다. 광양 출신인 황태현은 U-22 코칭스태프가 찾은 지난 24일 K리그2 서울 이랜드와의 경기에서 반치성코의 선제골을 도우며 김학범 감독에게 눈도장을 찍었다.
순천 출신으로 광양제철중, 광양제철고를 나온 전남의 한찬희도 승선했다.
공격수 오세훈(아산무궁화FC)과 더불어 2019 폴란드 FIFA(국제축구연맹) U-20 월드컵에서 견고한 쓰리백을 구축한 김현우(디나모 자그레브), 이재익(알 라이안), 이지솔(대전 시티즌) 등 U-20 월드컵 준우승의 주역들도 합류했다.

/김현영 기자 young@kwangju.co.kr